

“도움 필요한 아이들에게 ‘집밥’ 먹이고 싶어요”

방학 중 초등생에 반찬 만들어 배달 학부모 네트워크 ‘하모니’

120여 회원·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단과 봉사 국제위기 아동돕기 아나바다 장터 개최 등 활동 펼쳐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지난 10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광주공유주방에 들어선 자맛있는 냄새가 가득했다. 호박·감자·양파·돼지고기 등 각종 재료를 넣고 볶아 만든 짜장 소스, 비엔나 소시지 볶음, 잡채 김치 볶음, 단무지 무침, 도시락에 정갈하게 담긴 반찬이 먹음직스럽다.

이날 더운 날씨 속에서 반찬을 준비하느라 구슬땀을 흘린 이들은 학부모 네트워크 ‘하모니’ 회원들이다. 이들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과 함께 방학 중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반찬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는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모니’ 회원들이 참여하는 ‘집반찬 지원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초등학교인 광주대성초, 동산초 등과 연계해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20명의 학생에게 주 1회씩 집반찬을 배달한다. 메뉴는 각 학교의 교육복지사들이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 정했다.

지난 6월 국제위기 아동 돕기 위해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작은 정성을 보냈던 회원들은 아이들

게 맛있고 따뜻한 ‘집밥’을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이번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어떤 회원은 연가를 내고 참여하기도 하는 등 의욕적이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무엇인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들이 잘하는 게 음식 만들어 먹이는 거니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자 싶었죠. 저희가 학교까지 배달한 음식을 직접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에게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뿌듯하기도 했어요. 겨울방학 때도 기회가 되면 봉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고실초 학부모인 김보영씨는 “작은 나눔이지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할 수 있어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엄마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녀들도 눈에 띄었다. 아이들은 감자 등 재료를 운반하고 씻는 작업과 반찬을 도시락에 담는 등 일손을 도왔다.

이수빈(영산중 1)양은 “일방적인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음식을



학부모 모임 ‘하모니’ 회원들은 매주 공유주방에 모여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배달할 반찬을 만든다.

요리하는 의미있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보람있다”고 말했다.

이번 반찬 만들기 내내 학부모들과 호흡을 맞춰 요리를 전담하고 있는 이는 자원봉사자 한혜숙 씨다. 광주공유센터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한 씨는 모임 전일부터 주방에 나와 음식을 준비하는 등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김진구 단장

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은 학부모들의 도움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프로젝트가 확산돼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하모니’는 광주 학부모 자치 활동 조직으로 하고 지도 활동, 학교 주변 우범지대 정화 활동, 학부모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애플B유치원 ‘썸머 페스티벌’ 개최

애플B유치원(원장 최봉훈)은 지난 11일 ‘애플B 썸머 페스티벌’을 열었다. <사진>

애플B유치원은 매년 여름, 아이들이 무더위를 잊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썸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썸머 페스티벌에서는 ‘대형 수영장’, ‘에어 슬라이드’, ‘에어 바운스’ 등 다채로운 물놀이 기구가 설치됐다.

또 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인 ‘코끼리 에어스프링클러’, ‘물풍선 농구’, ‘물총놀이’, ‘미꾸라지 잡기’ 등 재미있는 즐길거리를 선보였다. 이 밖에 ‘버블·매직 레이저쇼’ 공연을 관람하는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썸머 페스티벌에는 특별한 손님도 찾아왔다. 애플B유치원 졸업생들이 썸머 페스티벌이 참여해 ‘마니또 게임’, ‘VR체험’, ‘마술공연 관람’, ‘원장선생님께 쓰는 편지’ 등 추억을 쌓았다. 애플B유치원은 매년 썸머페스티벌에 졸업생들을 초청, 함께 안부를 전하고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최봉훈 원장은 “썸머 페스티벌을 통해 아이들이 물의 소중함, 생존수영,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사전대비로 안전하고 신나는 축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보곤 디케이 회장, 광주교도소에 생수 6900병 전달

김보곤 디케이(주) 회장은 지난 11일 광주교도소를 찾아 500mℓ 생수 6900병을 전달했다. <사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장인 김 회장은 혹서기 더위로 힘겨워 하는 수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위해 생수를 기부했다.

김보곤 교정위원은 “여름 무더위에 수용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미력하나마 이렇게 생수를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철 광주교도소 소장은 “혹서기에 힘겨워하는 수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곤 회장은 앞서 지난 8일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광산구 주민을 위해 제습기 20대(60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 제습기는 광산구 거주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돌봄 이웃에 전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 김금숙 만화가 광주 강연

14일 동구 인문학당...전시도

김금숙<사진> 만화가가 제6회 ‘기림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 강연을 갖는다.

고흥 출신인 김 씨는 14일 오후 3시 광주 인문학당에서 광주시 동구 주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김 작가는 지난해 작고한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옥선 어르신께를 그리며 장편 만화 ‘홀’로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미국 ‘하비상’ 최고의 국제 도서 부문(2022년)을 수상했다. 인문학당에서는 ‘홀’ 원화 전시회도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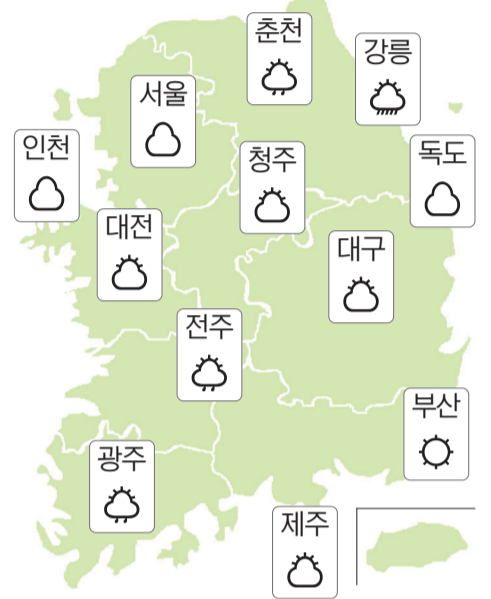
해돋이	05:51	달뜨기	03:21
해질름	19:23	달지기	18:30

찜통더위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	소나기	24/33	보성	소나기	22/31
목포	흐림	24/33	순천	소나기	24/33
여수	구름많음	25/31	영광	소나기	24/33
나주	소나기	23/33	진도	흐림	23/32
완도	구름많음	24/33	전주	소나기	24/32
구례	소나기	24/33	군산	구름많음	24/31
강진	소나기	23/33	남원	소나기	24/32
해남	구름많음	23/33	혁신도	구름많음	23/30
장성	소나기	23/33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0		
	면바다(남)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0.5~1.0	0.5~1.0		
	면바다(동)	0.5~1.0	0.5~1.0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6:45	18:13	01:13	12:59
여수	02:19	08:03		
	14:02	20:40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경고	높음	보통

◇ 주간 날씨

15(화)	16(수)	17(목)
24/33	24/32	24/31
18(금)	19(토)	20(일)
24/32	24/31	24/31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스마트폰도 배우고, 인생2막 정보 공유 모임=완전 무료. 60대 이상 초보자 환영. 스마트폰 기초부터 영상편집까지 배우기+ 성공적 인생2막을 위한 정보 나누기. 금남로 전일빌딩(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12시), 남구 진월동 공유센터(매주 화·목 오전, 오후반). 010-2626-5018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

- 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등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일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재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야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물러나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